

# ‘폰심’ VS ‘조직력’ 사활전 주말대전

## 신당 대선후보 마지막 경선

14일로 예정된 통합민주당 대선후보 마지막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세 후보는 표심몰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모바일) 투표에서 손 후보가 2연승을 거두면서 정동영-손학규 후보 간 선두 대결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정동영, 굳히기 총력전=정 후보 측은 휴대전화 투표에서 2회 연속 2위를 기록하면서 초반 상승 분위기에 제동이 걸리지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모바일 바탕이 14일 원샷 경선과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 후보는 12일 오전 긴급 선대위 회의를 소집, 참석할 의원 20여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자”며 긴장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정 후보 측은 남은 8개 권역별로 현역의

## ‘鄭 대세론-孫 바람’ 선두 대결 치열 예측불허 접전…李 “끝까지 최선”

원 3~5명씩에게 상환본부장을 맡겨 현장에 상주하며 진두지휘하도록 했고, 특히 손 후보와의 격전이 예상되는 경기지역의 경우 정 후보가 이날 수원, 안산, 일산, 의정부 등 경기 지역을 저인망식으로 뚫으며 표심 얻기에 나섰다.

◇손학규, “본선 경쟁력으로 승부”= 손 후보측은 휴대전화 투표에서 연승한 것은 선거인단이 “손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인정해 주기 시작한 것”이라며 14일 원샷 경선에서 역전 드라마를 일궈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며 막판 표심잡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손 후보 측의 전략은 휴대전화 투표를 득표자 확대와 오프라인 투표를 격차 줄이는 것. 이를 위해 정 후보 측의 조직 동원선거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전날 대구를 방문해 영남표심에 공략에 나섰다 손 후보는 12일 인천 남구,부평구, 서구와 의정부, 서울 등을 돌면서 30분 단위로 지지자들과 만나는 수도권 읍면전략에 나섰다.

◇이해찬, “끝까지 최선”=이 후보 측은 계속된 경선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전주와 익산 등 전북지역, 11일에는 대전과 천안, 아산 등 충남지역을 순회했던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한 뒤, 강세지역으로 분류되는 대구와 경주, 포항을 돌며 지지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졌다.

또 정 후보 측의 부정법 선거를 집중

부각하며 이 후보의 깨끗함을 강조한다는 전략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명의도용 아르바이트 지시 鄭 캠프 관계자 영장 검토

통합민주당 경선과정의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2일 명의도용 작업을 한 대학생 박모(19)군 등에게 정동영 캠프 사무실에서 대리서명 아르바이트를 하게 한 것으로 알려진 정 캠프 관계자 김모(37)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캠프측이 지난 6일 압수수색 당시 자료 제출을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 캠프 사무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해서 관련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시설

### ‘광산업의 날’ 광주 전략산업 육성 계기돼야

오늘은 ‘광산업의 날’이다. 한국광산업진흥회와 광주광역시대표자협의회, 광주광역시 대표단체가 공동으로 광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광주의 전략산업인 광산업 유망업체 표창과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광산업의 발전속도는 엄청나다. 지난 2000년 광산업 육성 초기에는 용어조차 생소했지만 지금은 광주의 대표적 전략산업으로 발돋움했다. 광주체인 개막식도 광산업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다. 감사원은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광주 광산업이 고용 성장세에 있고 연구개발사업도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매출액 100억원과 종업원 수 100명을 넘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광주의 광산업체는 지난해 말 207개사에 달한다. 광통신 분야와 반도체 조명분야, 광

정밀기기 및 계측산업 분야에 70%가 몰려 있다. 광주전략산업기획단은 최근 광산업 특화 유망분야 12개를 선정,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자립기반이다. 광산업은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업체가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스템 제조 등 중견기업이 없다는데 연구 및 기술개발과 제조가 없으면서 이렇지 못하는 등 인프라가 미흡하다.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업체간 정보 교류 및 협조체제도 원만하지 못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광산업의 날은 광주 광산업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광산업은 광주의 전략산업이자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이다. 광산업이 광주의 특화산업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유니버시아드 광주 유치 이제 시작이다

광주시가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됐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단독 신청한 광주시를 후보도시로 확정하고 오는 15일까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정·관계와 경제계 및 체육계 인사 등 100여 명으로 범국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유치전에 나설 계획이다.

2년마다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최하는 세계 청년학도들의 스포츠제전이다. 170여개국 1만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육상과 축구 등 15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생산유발효과 5천900억원, 소득유발효과 1천900억원, 고용효과 2만9천여명 등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는 아직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른 경험이 없다. 월드컵 4강 도시라고 하지만 단일종목 몇 경기에 불과하다. 광주시가 경쟁에 뛰어들 만큼 치밀한 전략을 세워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반드시 유치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성원과 협조는 필수적이다.

추진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캐나다와 멕시코, 폴란드 등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려면 이들 국가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유니버시아드대회와 같은 국제대회 유치는 지역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된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도시시설을 재정비하고 시민의식과 행정시스템 등을 한 단계 끌어올려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 수 있다. 도시 브랜드의 가치가 상승되고 고용 창출과 관광 활성화 등 파급효과도 거둘 수 있다.

광주는 아직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른 경험이 없다. 월드컵 4강 도시라고 하지만 단일종목 몇 경기에 불과하다. 광주시가 경쟁에 뛰어들 만큼 치밀한 전략을 세워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반드시 유치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성원과 협조는 필수적이다.

## 申·卞 구속 수감

### 김석원씨 특사 청탁등 조사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장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2일 새벽 법원의 영장발부 결정에 따라 신씨와 변 전 실장을 비롯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했다.

영장을 심사한 서부지법 형사11부 장진훈 부장판사는 “이들은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공범이나 범죄 상대방의 관계에서 증거인멸의 계연성이 높다”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 도망칠 우려도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신씨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신씨와 변 전 실장이 1년여 전부터 차명전화(대포폰)를 통해 서로 상당히 많은 통화를 했고 9월 초에 전화는 해지됐다. 대포폰을 바꾼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12일 신씨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이 특별사면되도록 변 전 실장에게 청탁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신씨와 변 전 실장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신씨가 김 전 회장의 부인인 성곡미술관 박문순 관장으로부터 2천만원의 받고 변 전 실장에게 김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청탁한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 정부 정상선언 이행 대책위 구성

정부는 12일 ‘2007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분야별 대책회의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상선언 이행체계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이행체계를 확정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연합뉴스



**축제의 밤... TBN 개국 10주년 축하공연** TBN 한국교통방송 광주본부와 광주일보는 12일 오후 6시30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특설무대에서 ‘2007 총장제 축제와 함께하는TBN 개국 10주년 축하공연’을 가졌다. 이날 공연에는 김범용·윤시내·추가열·최유나 등 인기가수 12명이 출연했으며, 시민 5천여명이 가을밤의 공연을 즐겼다. /최원일기자 choi@kwangju.co.kr

# 한나라 “의회 일정 보이콧”

## BBK김경준씨 증인 채택 강력 반발...“신당 날치기 폭거”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국회 정부위가 이명박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준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데 반발,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통합민주당이 정부위 증인채택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때까지 모든 의사 일정을 중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법사위 등 일부 상임위가 ‘반쪽 진행’ 되는 등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다. 한나라당은 또 ‘날치기 시도 폭거 규탄 결

의문’을 채택하고 “통합민주당의 어제 정부위 기습 불법 날치기는 원천무효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은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야당 대선후보 흡입대기에 맞서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나라당은 김경준씨가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이번 증인채택이 이뤄진 것은 결국 ‘이명박 흡입대기’를 위한 범여권의 정치적 노획수가 본격화한 것이라고 판단,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앞서 ‘예방주사’를 놓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통합민주당이 1분만에 기습적으로 날치기를 시도했다. 박정식 위원장은 ‘속개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마디를 하고 끝냈는데, 이것은 정상적 의결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것으로 부존재 내지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신당은 지난 11일 밤 열린 국회 정부위를 열어 BBK 전 대표 김경준씨와 에리카 김 등 BBK 관련자와 이명박 차남 김재정 씨 등 1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 노벨 평화상 고어·IPCC 공동수상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앨 고어 前 미국 부통령 라젠드라 파초리 의장

2007년 노벨평화상은 지구 온난화 대처에 지대한 공로를 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3일 “인간이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고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노획한 공로를 인정해 고어 전 부통령과 IPCC를 2007년 노벨 평화상의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정치적 활동과 강연, 영화, 저서 등에 반영된 그(고어)의 강력한 의지가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 노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말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지구 환경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1992년 빌 클린턴과 러닝 메이트로 출마, 부통령에 당선된 이후 1997년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의정서’ 창설을 주도하고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등 지구 온난화 대처에 앞장섰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담아 1992년 ‘위기의 지구’란 책을 출간한 데 이어 지난해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에 출연

하고 같은 이름의 책을 펴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3천여명의 대기 과학자와 해양학자, 얼음 전문가, 이코노미스트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IPCC는 지구 온난화와 그 영향에 관한 세계 최고의 국제기구다.

IPCC는 지난 1988년 지구환경 기운대 특히 온실화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한 목적으로 UN 산하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다. 온실화의 과학적 평가, 환경이나 사회에의 영향, 그 대응 등을 검토·연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구온실화 방지 조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희정기자 chae@kwangju.co.kr

## 코리안특급 박찬호 여수 박람회 홍보대사

미국 프로야구 코리안특급 박찬호(34·휴스턴 에스트로스) 선수가 12일 2012 여수 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사진〉



진국으로 발전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kwangju.co.kr·연합뉴스

박 선수는 이날 여수시청을 방문해 오현섭 여수시장으로부터 위촉패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며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선수는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인의 자긍심을 잃어본 적이 없다”면서 “여수 세계박람회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받은 것에 감사하고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한국이 선

## 피초 슬로바키아 수상 여수 박람회 지지 표명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수상은 2012년 세계박람회의 여수 유치와 관련, “동반자로서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초 수상은 11일(현지시간) 브라티슬라바에 위치한 수상관에서 여수 세계박람회 명예유치위원장인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현대·기아차그룹이 12일 전했다.

피초 수상은 “지난 4월 기아차 공장 준공

식에서 여수 엑스포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다룬 영상물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한국이 엑스포를 유치해 성공리에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현대·기아차그룹의 파트너인 슬로바키아가 대한민국 여수를 지지해 준다면 양국간 경제협력과 민간부문의 우호 증진에도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정 회장의 지원요청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 빛의만평

- 김중두



‘전관에우’ 이래도 되는거냐?!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시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76)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